

# 회원사 동정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ATM카드 국내 첫 개발

워크스테이션(WS) 또는 PC 사용자가 1백 55Mbps 속도의 비동기전송방식(ATM) 초고속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ATM카드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ATM게이트로 명명된 이 장치는 기존 컴퓨터상에 카드 형태로 간단히 장착하여 ATM통신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최대속도가 64Kbps에 불과하던 컴퓨터 단말기 사이의 통신속도가 수백 메가급으로 단숨에 향상돼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맛볼 수 있는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장치의 개발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ATM 통신망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 왔는데도 망의 효율성을 입증할 단말기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발된 ATM게이트는 지금까지 개발된 외산제품에 비해 호환성과 기능면에서 뛰어나며 다양한 가입자 접속능력을 보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DOS 및 윈도즈를 위한 패킷 드라이버와 윈도즈NT를 위한 NDIS드라이버도 함께 개발돼 다양한 운용체계를 지원하며 PCI버스를 비롯해 ISA, S-BUS, 터보채널 등 다양한 버스 방식으로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LAN에물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어 기존의

TCP/IP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수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시험운용중인 ATM선도시험망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ATM통신망이 전국적으로 확대구축될 경우 PC사용자들이 ATM망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TM게이트는 국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관련, 올해부터 ETRI가 시작한 기가비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첫 제품이다.

### B-TA내년초 상용화

기존의 일반단말기나 사설망을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에 연결해 쓸 수 있게 해주는 단말정합장치(B-TA)가 내년초 상용화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대영전자, 삼성전자, 한화전자정보통신, LG정보통신 등 4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4종류의 B-TA 2차 시제품에 대

한 개발확인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4개기업이 개발한 8대의 장치를 초고속선도시험망에 연결해 기능 및 현장확인 시험을 했으며 이번 시험을 통과한 장비는 2차 초고속 시험망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자통신연구소와 참여 기업들은 2차시작품에 대해 사용자인터페이스 B-ISDN망관리 등의 기능을 보완, 올해말까지 상용제품을 개발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 현대정보기술

### 그룹 CALS 본격 추진

현대정보기술(대표 김택호)이 그룹의 정보기반을 CALS(무기체계획득 및 군수지원전산화)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CALS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범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정보기술(HIT)은 현대중공업의 생산 및 관리 등 전업무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업체 및 부품공급업체들간의 부품납품정보주문관련정보 등의 교환을 CALS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정보기술은 이를위해 최근 경영진 및 전담팀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들어갔다.

현대정보기술은 현대중공업을 시범업체로 선정해 CALS를 구축하고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열사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정보기술은 지난해부터 CALS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의 CALS전문회사인 CSC社와 기술협력 등에 관해 꾸준히 접촉해 왔다.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키로

현대정보기술은 오는 2천년 1조원의 매출을 달성, 세계 20대 정보서비스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직접 구축하고 PC통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정보기술은 HIVAN을 고속, 대용량화하여 먼저 인터넷사업의 하부구조로 활용한 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선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도 뛰어든다는 구상이다. 현대정보기술은 또 PC통신을 주력사업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어 연내 전국에 노드(접속점)16개를 설치, 내년1월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LG정보통신

### UHF무선전송시스템 KT 공급자격 획득

LG정보통신은 북미·유럽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극초단파대 무선전송장비(UHF-PCM:모델명 GDR-700)를 개발, 한국통신(KT)으로부터 장비공급자격을 획득했다. 극초단파대인 3백~3천MHz주파수대역중 7백50~9백60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장비는 중소 도시지방, 지형이 불규칙한 산간지방 등 유선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선로를 매설하지 않고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 구축에 사용되는 핵심 전송장비이다. 특히 이 장비는 북미·유럽방식 모두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장비가 북미방식만을 제공, 기존 통신망 가운데 유럽방식으로 설치돼 있는 다른 통신망과의 접속이 어려웠던 단점을 보완해 보다 통신망 구축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 장비는 점유대역폭 이용효율이 높은 16QAM변조방식(위상진폭변조방식)을 채택, 48회선 용량의 기존장비에 비해 동일한 대역폭에서 두배의 전화회선 용량인 96회선(북미방식), 1백20회선(유럽방식)을 수용할 수 있게돼 주파수 이용효율을 한층 높힌것이 특징이다.

## 러시아에 교환기 수출

LG 정보통신이 러시아 스타브로폴주 키슬로프 스킨시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참여한다. LG 정보통신은 러시아 스타브로폴주 통신청과 1만회선, 3백만달러 규모의 교환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5년간 15만 회선을 공급키로 했다.

키슬로프스키시에 공급될 교환기는 최대 용량 12만 회선급인 STAREX-TX1으로 지난해 7월부터 스타브로폴주 주도 스타브로폴시에도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다. LG 정보통신은 이번에 계약한 시스템을 올해말부터 공급해 '96년 설치를 마치고 현지 기술자를 초청, 기술전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코리아실렉트웨어

### 캡션기능 지원 비디오CD 2.0 타이틀 제작

국내에서 처음으로 캡션기능이 지원되는 비디오 CD 2.0 타이틀이 최근 선보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실렉트웨어는 비디오CD 2.0포맷에서 캡션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영화타이틀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를 제작, 보드업체인 두인전자에 번들로 공급한다.

이번에 개발된 캡션기능 영화타이틀은 일본의 소니와 마쓰시다 등 4개사가 공동제정한 화이트북 2.0규격에서 지정한 EIA 608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타이틀은 영화감상시에 등장인물의 대사를 별도의 자막으로 볼 수 있어 해당언어의 자막자료를 영화와 함께 보면서 어학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리아실렉트웨어는 듀얼캡션을 지원하여 한국어와 영어 언어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볼 수 있는 비디오CD 2.0타이틀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를 제작, 두인전자의 MPEG보드에 번들로 공급키로 했다.

## 삼테크

### 오토캐드 LT 총판

삼테크가 오토데스크코리아(ADK)를 대신해 오토캐드LT의 국내 총판활동을 하게 된다. 삼테크는 최근 ADK와의 오토캐드LT 총판계약을 마치고 본격 영업에 나섰다. 兩社의 계약에 따라 삼테크는 기존 ADK의 84개 공인딜러를 대신해 오토캐드LT 판매를 총괄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兩社의 제휴로 그동안 일반용 오토캐드 중심의 캐드시장에서 오토캐드LT버전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가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오토캐드LT는 기존 국내 PC범용캐드시장에서 80% 이상을 점하는 오토캐드의 기능을 축소한 교육용 버전이다. 기존 유통가에서의 오토캐드 버전공급가는 3백50만원대, 오토캐드LT는 15% 정도인 50만원에 공급되고 있다. ADK가 키미데이타 큐닉스컴퓨터의 대리점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삼테크를 오토캐드LT버전의 국내 총판업체로 선정한 것은 ADK의 향후 영업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 영상장비 사업 본격 진출

삼테크가 영상장비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멀티미디어사업부를 신설한 삼테크는 그동안 부진했던 CD롬 타이틀 및 사운드카드 유통사업을 중단하는 반면 디지털 논리니어(Non-Linear) 편집장비를 비롯한 각종 영상장비와 CAD관련제품 판매사업을 강화, 멀티미디어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삼테크는 최근 미국 오토데스크社와 계약을 체결, 큐닉스와 키미데이타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오토데스크의 공식 디스트리뷰터로 지정됐는데 이달말부터 오토데스크의 보급형 CAD제품인 오토캐드 LT의 판매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오토데스

크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애니메이터 스튜디오, 3D 스튜디오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테크는 다림비전이 개발, 공급하고 있는 영상편집용 보드인 마스(MARS) 시리즈와 독일 파스트사의 디지털 논리니어 편집 장비 비디오머신의 판매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테크는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덕션 및 기업체 홍보실 등에서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에 애니메이션 활용이 점차 늘어나 관련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테크는 앞으로 유통업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과 제휴, 다양한 영상장비를 선보이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 솔빛조선미디어

### 영국 DK 멀티미디어사와 제휴

솔빛조선미디어는 최근 해외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영국 DK 멀티미디어사와 제휴했다. 이번에 솔빛과 제휴한 DK 멀티미디어사는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출판사 DK社의 자회사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Ultimate Human Body"를 비롯해 10여종의 CD롬타이틀을 제작한 바 있는 CD롬타이틀 전문제작업체이다. 솔빛조선미디어는 이달말부터 DK 멀티미디어사 타이틀의 수입판매와 함께 The Way Things Work와 Encyclopedia of Nature 등 4종을 한글화하고 현재 2백여종의 기계구조와 작동원리를 담은 The Way Things Work를 한글화하고 있는데 오는 11월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타이틀은 국내 사용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레이션을 포함한 본문내용을 모두 한글로 번역할 뿐 아니라 색인 검색기능까지도 한글로 처리된다. 솔빛조선미디어는 이번 제휴로 DK 멀티미디어사

의 CD롬타이틀을 한글화, 국내시장에 출시하는 외에도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자사 CD롬타이틀의 영문화 및 수출을 위한 공동작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산업기술정보원

### STN사용자 큰폭 증가

산업기술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보은행인 STN인터내셔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작년 3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STN인터내셔널 이용건수가 7월말 현재 작년 동기예 비해 1백40% 이상 증가한 3천여건을 기록,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TN인터내셔널은 미국 CAS(화학논문초록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독일연방정보센터 및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는 온라인정보은행으로 이들 3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검색,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화학분야의 정보가 충실한 이 정보은행의 가입을 맡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원은 신규 이용자를 위하여 매년 5차례에 걸쳐 STN 기본검색을 비롯한 화학초록, 물질명, 반응식,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데이콤

### 프로토콜 변환서비스 제공

EDI(전자문서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의 본지시간 또는 기업들간에 별도의 지원장비 없이 PC로 상대방의 주전산기에 접속,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데이콤은 자체개발한 프로토콜(통신규약) 변환

기능을 통해 상대방의 주전산기와 데이콤 EDI를 연결, 일반 PC로 상대방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토콜 변환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IBM, HP, FACOM 계열의 주전산기를 갖춘 업체에서 온라인망을 구축할 경우 단말기에 통신용 카드를 장착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는 EDI 중계시스템이 일반 PC와 주전산기간의 프로토콜이 일치하도록 자동변환시켜 별도의 장비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즉 기업들은 별도의 장비투자 없이 자체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망 구축에 들어가는 전용회선요금 대신 데이콤 EDI접속요금만 내면 된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투자없이 공중 정보통신망인 DNS(데이콤네트)를 경유해 상대방의 주전산기에 접속시켜 재고현황과 생산라인의 현황 등 각종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재고관리와 영업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 베트남 정보통신시장 첫 진출

- 14일, 신용카드 조회 등 통신협력 양해각서 체결
- 베트남 중앙은행과 금융전산망 구축도 추진

데이콤이 인도에 이어 베트남 정보통신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데이콤은 해외통신사업 담당 자회사인 데이콤 인터내셔널을 통해 베트남의 신용카드조회(CCIS)사업에 진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데이콤은 또 신용카드조회사업 진출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LG상사(社長:朴秀煥) 및 베트남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合作社를 설립, 향후 베트남 금융전산망 구축 등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데이콤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도 쿠에 루옹(Do Que Luong) 베트남

중앙은행 수석부총재와 金榮哲 전무, 張炳宇 LG상사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韓·베트남 합작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날 데이콤을 비롯한 LG상사, 베트남 중앙은행측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베트남에서 SI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사업을 함께 추진하되 우선 1단계로 신용카드조회와 금융전산망사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함께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등 각종 하드웨어 장비의 공동생산에 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 合作社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는 또 양해각서에서 1단계 타당성 검토와 시장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포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베트남 정보통신산업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통신이 하이퐁, 하이흥, 광린 등 북부의 3개 지역 통신망 확장사업에 참여중인 것을 비롯 LG정보통신 등 일부 통신기기 제조사들이 現地에서 통신장비를 합작생산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진출은 全無한 상태이다. 따라서 데이콤과 LG상사측은 이번 베트남 정보통신시장 진출이 컴퓨터 단말기등 국산장비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데이콤은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를 비롯,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CCIS및 금융전산망 등 SI사업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데이콤은 인도 히마찰社와 함께 총자본금 16억원 규모의 HDIL社를 설립, 올 10월부터 뉴델리, 봄베이,를 비롯한 캘커타, 마드라스 등 8대도시에서 시티은행, 홍콩은행 및 인도 內國銀行등 각종 금융기관, 비자, 마스타 등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신용카드조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DC**

신 규 회 원  
가 입 연 황

## 현대정보 기술 L O G O



- 기관명 : 현대정보기술
- 대표자 : 대표이사 김택호
- 주 소 : (본사)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연락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20 삼환빌딩7층
- 전 화 : (본사) (02)746-7006, FAX:(02)746-4199  
(연락사무소) (02)747-4181, FAX:(02)746-7039
- 주요사업 :
  - 부가통신사업
  - SI사업
  - 기타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
  - 시스템 종합관리(SM)사업
  - 정보통신사업
  - 자동화 사업
  - 경영컨설팅
- 설립년도 : 1993년 9월 1일
- 총자본금 : 2109억
- 연간매출 : 1,700억원
- 종업원수 : 2039명